

전기차 보조금 줄고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사라져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축소된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도 하향된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역시 사라진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

기존 800만원→700만원으로 ↓
보조금 전기차 상한 5500만원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연장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하는 등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비롯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오

는 7월부터 일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돼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된다. 공공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속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숙시설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세계 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

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1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 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더클래스 효성, 'AMG G 63 효성 에디션' 10대 한정판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의 10대 한정판 'G 63 효성 에디션'을 단독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G 63 효성 에디션'은 오직 더클래스 효성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10대 한정 에디션으로, 스페셜 인디오티를 통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2종의 희소성 있는 색상으로 공개됐다.

차이나 블루 솔리드 외장 컬러 모델의 실내는 플래티넘 화이트 투톤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됐으며, 클래식 그레이 솔리드 외장 컬러 모델의 실내는 클래식 레드와 블랙의 투톤 나파 가죽 시트로 구성됐다.



더클래스 효성이 단독으로 선보인 '메르세데스-AMG G 63'의 10대 한정판 'G 63 효성 에디션' 모습. (더클래스 효성 제공)

다. 운전자를 위한 앞 좌석 액티브 멀티 컨투어 시트와 함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프리 인스톨레이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뒷좌석 탑승자의 편안함을 높여주는 첨단사양이 적용됐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들에

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하게 됐다"며 "메르세데스-AMG G 63의 10대 한정판 에디션 'G 63 효성 에디션'을 통해 더클래스 효성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미래사업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을 가시화해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은 3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그룹 신년회에서 상영된 영상 신년사를 통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비롯한 미래사업 분야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2022년 새해 의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4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시범 서비

스를 선보이고, 2023년 양산 예정인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주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상반기 레벨4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라이드'(RoboRide),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과 결합한 '로보셔클'(RoboShuttle)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연계된 이동 편의의 경험을 제공한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동의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하



는 UAM은 '최상의 품질을 갖춘 천상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의미의 '슈퍼날'(Supernal)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2028년 상용화 목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UAM 상용화 계획도 소개했다.

이밖에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만족하는 '친환경 톱 티어 브랜드'가 되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완성차의 전동화 전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전기차 EV6, 독일 차 전문지서 잇단 호평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 EV6(사진)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잇달아 호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와 아우토 자이퉁,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는 최근 유럽 시장에 진출한 EV6에 대한 신차평가를 발표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들 매체는 EV6의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가속력, 주행 안전성, 승차감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고 기아는 전했다.

먼저 아우토 빌트는 총평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가장 우수한 배터리 전기차"라며 "고속 커브 구간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주행 성능과 스티어링 휠

의 훌륭한 응답 성능은 예민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해 탄성을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매체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EV6의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며 경쟁 차량인 폭스바겐의 ID.4보다 충전 속도가 2배 빠르다고 강조했다.

아우토 자이퉁은 EV6의 디자인에 "우아하고 첫 눈에 반할만하다"고 호평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의 내부 공간과 프랭크(프론트 트렁크)가 실용적이라며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을 모두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마세라티 윈터 모먼트 위드 Q4' 이벤트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3일 겨울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전국 8개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마세라티 윈터 모먼트 위드 Q4'(Maserati Winter Moment with Q4)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Q4' 탑재차량 시승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Q4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겨울철에도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0.15초 내 안정적인 구동과 토크 배분을 통해 안전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마세라티의 4륜구동 시스템이다. 이밖에 마세라티 2022년 탁상 달력과 우산을 증정하고, 예약 및 출고 고객 대상으로 마세라티 무선충전 무드 시계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번호 제190816-광-388919